동안거 한달만에 외호대중 5만명…'야단법석 선방'

위례 상월선원 정진 현장

"결사 정진의 힘으로 사회 갈등·대립 극복 화합 상생 가치 발원"

전국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 14일, 9명 스님과 철야정진

지난 14일 위례 상월선원 천막법당에 모인 전국의 주요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9명 결제대중들과 철야 용맹정진을 함께하며 우리 사회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화합과 상생을 발원했다. 김형주 기자 cooljoo@ibulgyo.com

"상월선원 정진결사! 한국불교 중흥결사! 대한민국 화합결사! 온 세상 평화결사~~" 지난 14일 늦은 저녁, 어두운 주변과 달리 환하게 불 밝힌 위례 상월선원 천막법당에서 500여 사부대중의 우렁찬 함성이 터져 나왔다. 9인의 결제대중이 비닐하우스 선방에 입방한지 한 달째로 접어든 이날, 두 번째 철야정진법회가 열렸다.

특히 이날은 전국의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대거 참석해 관심을 모았다. 서울에서 제주까지 전국을 들썩이게 할 정도의 인원이 한꺼번에 모여, 경건하면서도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사무총장 일감스님 사회로 진행된 법회는 상월선원 총도감 혜일스님의 경과보고로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혜일스님은 "일체 난방이 되지 않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약 200g이라는 소량의 식사로 하루를 버티며 정진하고 계시다"며 "저체온증이 정말 염려되는 상황인데 지속적으로 응원을 보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곧이어 입재식이 봉행됐다. 삼귀의, 한글 반야심경 봉독에 이어, 금산사 주지 성우스님이 불퇴전 의지로 용맹정진하겠다는 의지를 고하는 고불문을 낭독했다.

"혹독한 계절이지만 정진은 더욱 뜨겁고,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절실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정진하고, 사회와 국민의 큰 버팀목이 되어나가도록 몸과 마음이 하나 되어 지켜가겠습니다."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원경스님은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을 대표해 "이(理)와 사(事), 승과 속, 산중과 도심을 구분 짓지 않고 분별없는 마음으로 진행되는 상월선원의 새로운 시도는 불자들 자존감을 높이고 종단 위상을 높여 한 단계 도약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면서 "어떤 경우에도 이 숭고한 상월선원 정신과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자"고 인사했다.

입재식에는 조계종 교육원장 진우스님, 포교원장 지홍스님, 동국대 이사장 법산스님, 불교신문사장 정호스님이 참석했다. 또한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원경스님을 비롯 서울 조계사 주지 지현스님, 봉은사 주지 원명스님, 도선사 주지 도서스님이 참석했으며, 총 13곳의 교구본사 주지 스님이 참석했다. 주지 스님을 대신해 참석한 본사 주요 소임자 스님들도 동참해 수행 열기를 이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성이 동국대 총장, 정연만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회장도 함께했다.

이날 동국대 이사장 법산스님은 참석대중을 대표해 "민족 갈등을 녹여버릴 뜨끈뜨끈한 화로를 지금 지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사장 법산스님은 "여기 모셔진 석불부처님의 야무지게 다문 입을 닮아 9분 스님들이 간절한 염원으로 정진하고 있다"며 "본사 주지 스님들의 원력과 안에 계신 스님들 정진력이 어우러져 한국불교를 새롭게 깨우는 계기가 되길 간절하게 발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덕숭총림 수덕사 주지 정묵스님은 이러한 대중들의 염원을 담아 발원문을 낭독하며 '화합과 공존, 상생'의 가치를 실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정묵스님은 "오늘 이 특별한 철야정진을 시작으로 외호대중들은 부처님 지혜를 증득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고, 우리 땅 곳곳에 새로운 불교의 등불이 피어나서 뿔뿔이 흩어진 국민들 마음을 안정시켜 화합이 이뤄지고 한국불교 미래가 환하게 밝아지길 기원한다"면서 "갈등과 분쟁을 일삼는 중생에겐 화합과 평화의 길을 알려주시고, 남북한이 화합해 평화롭게 공존해 통일의 길로 나아가게 해 주시며, 불자 대중들이 모두 건강하고 안전해 신명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살펴 달라"고 발원했다.

입재식이 끝난 직후, 박범훈 불교음악원장을 중심으로 한 봉은국악합주단이 흥겨운 국악공연이 펼쳐졌다. 대중들은 신묘장구대다라니 기도로 밤을 지새우며 15일 새벽까지 정진했다.

하남=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상월선원 "하루 1000명 … 사부대중 함께하는 정진도량"

비닐하우스 천막 법당에서 혹한의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며 동안거 정진에 들어간 9명 스님들을 외호하려는 사부대중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위례 상월선원 천막법당에서 매일 대규모 기도법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동안거 시작 한 달 만에 5만명 정도가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철야용맹정진에 들어간 지난 14일 총도감 혜일스님이 경과보고에서 발표했다.

선원 측에 따르면 하루 평균 1000명 이상이 다녀가고 있으며, 철야정진이 있었던 7일과 14일에는 하루 동안 2000여명이 다녀갔다. 현재까지 선원을 찾은 사찰과 단체도 450여 곳에 이른다.

이런 가운데 체험관도 본격적으로 문을 열면서 입방하고자 하는 스님과 재가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체험관 일정은 짧게는 1박2일, 길게는 2박3일 동안 결제대중 스님들과 똑같은 환경에서 정진하도록 프로그램이 짜여 있다.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윤성이 동국대 총장 등이 처음으로 방부를 들인 이후, 중앙종회 의장단 스님, 조계사불교대학 최고위 과정 여성 불자들이 동참했다. 수행체험은 상월선원 문이 열리는 내년 2월7일 전까지 꾸준히 이어진다. 12월말 수국사 신도회장을 포함한 3명이 정진체험을, 1월에는 봉선사 신도회장, 체육인불자연합회, 봉은사 거사림 회원 등이 이미 방부를 들였다. 1월11일에는 총무원 문화부장 오심스님 등 4명이 체험관에 입소한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 본각스님을 비롯한 집행부 스님들과 비구니 종회의원 스님들도 지난 16일 상월선원을 찾아 기도 정진에 동참했다.

"9인 천막결사 수행공덕으로 부처님 가르침 영원히 이어지길"

전국비구니회 기도정진 동참

"오늘날 대한민국 불교는 1700년 역사에 이어 모든 수행자와 재가불자는 함께 한국불교를 만대에 이어가는 고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9분의 수행 공덕으로 한국불교가 이 위기를 벗어나 더욱 중흥해 자손만대에 부처님 가르침이 영원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이곳 상월선원에서 기도정진하는 뜻은 한국불교를 중흥해 부처님 가르침이 영원히 이어지게 하는데 있습니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 본각스님이 위례 상월선원 부처님 전에 간절한 발원을 올렸다. 상월선원 천막결사 기도 동참을 통해 한국불교 위기 극복과 중흥에 비구니 스님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염원이 담긴 발원이었다.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위례 상월선원을 찾는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전국비구니회가 지난 16일 상월선원을 찾아 기도 정진에 동참했다. 기도 정진에는 전국비구니회장 본각스님을 비롯해 집행부 스님들과 비구니 종회의원 스님들이 함께 했다. 이와 함께 불교중앙박물관장 탄문스님, 안성 운수암 탄묵스님,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사무처장 탄웅스님 등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 상좌 스님들과 연주암, 운수암, 염불사, 대덕사, 원적정사 등에서 불자 200여 명이 참석해 천막법당 기도 정진에 힘을 보탰다.

이날 기도에 동참한 스님들과 불자들은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기도에 마음을 모았다. 사부대중의 독경 소리와 징, 법고 소리가 하나로 어우러지며 기도 열기는 더욱 뜨거워졌고, 천막법당 안도 이내 후끈해졌다. 기도에 이어 참가자들은 각자 소원을 적은 소원등을 들고 상월선원 펜스로 걸음을 옮겼다. 전국비구니회장 본각스님을 비롯한 비구니 스님들은 고행 정진 중인 천막을 향해 삼배를 올렸고, 불자들은 '스님들 건강하세요', '천막결사 원만 회향 발원' 등을 적은 소원등을 정성껏 펜스에 묶었다.

전국비구니회장 본각스님은 "상월선원을 참배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 9분 스님들이 몸을 던져서 한국불교 수행가풍을 다시 구현하려 하시고 한국불교를 중흥시키는 토대를 만들기 위한 그 정신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동참하게 됐다"며 "9분 스님들이 앞으로 추위를 잘 견디시고 잘 회향하시기를 함께 기도해 달라.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한국불교 수행가풍이 상월선원을 토대로 만세에 이어지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남=엄태규 기자 che11@ibulgyo.com